경제협력 넘어 정치까지 한·중 밀월 업그레이드

朴대통령 오늘 전승절 행사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 참석과 이를 계기로 한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가 한층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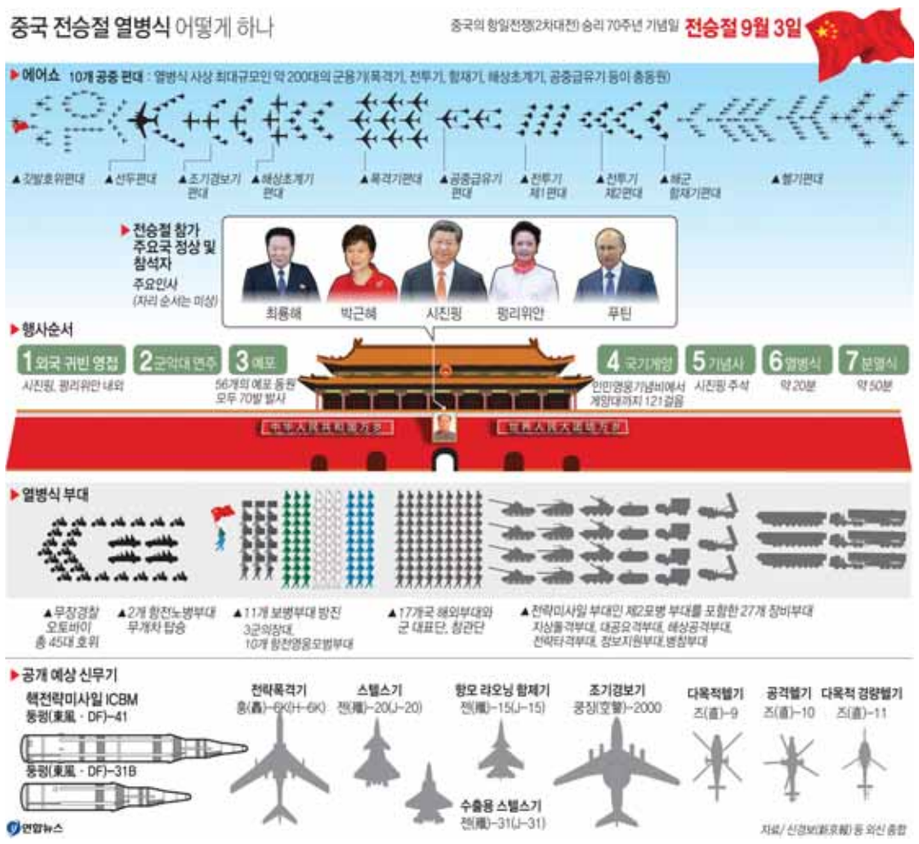
박 대통령의 군사 퍼레이드(열병식)까지 포함된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한 것은 어려울 결정이었다. 중국의 '군사굴기'를 경계한 미국을 비롯해 서방 정상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한중관계와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 등을 고려해 결단에 가까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국 측도 박 대통령의 이런 어려운 결정 과정을 잘 알기에 이번 방중과 3일 예정된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을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세계 여러 정상 가운데 2일 박 대통령과 유일하게 특별 오찬을 함께하는 성의를 보였다.

이번 중국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데 비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불참한 것도 긴밀해진 한중관계와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6번째 정상회담을 한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런 교감을 통해 한중관계의 토양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열경열'(政熱經熱 :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교류도 뜨겁다) 관계에 와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중관계를 더욱 격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동안 정랭경열(政冷經熱)로 평가됐던 한중관계가 이제는 북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중관계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소원해진 가운데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역내 역학구도에 미칠 함의가 주목된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기존 전통적 역학구도가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중, 북중 관계의 변화 속에서 대립구도의 완화 등 기존의 안보 틀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중관계가 더할 나위 없이 긴밀해지는 것은 지금까지의 '남방 3각'(한미일)과 '북방 3각'(북중러) 구도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쿨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으로 조성됐던 남북 간 일촉즉발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미일 관계는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매커니즘"이라면서 강조했다. /연합뉴스



타당성 재조사땐 윤시장 임기내 불투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착공 연기

저심도 공법·푸른길 우회 등

정부예산 승인액 15% 이상 초과

10%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 해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용역이 지난 3월 중단된데 이어 사업비가 정부 건설 예상승인액의 15%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착공 시기가 장기 지연될 전망이다. 광주시도 2일, 애초 계획인 2016년 말께가 아닌 2017년 말 또는 2018년 초 착공 예정이라고 밝혀 착공 지연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착공까지는 건립방식(저심도 또는 지상고가형 '모노레일'), 푸른길 보존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칫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윤장현 광주시장 임기 내 첫 삽을 뜨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용역 중단 속 과제 산적**=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본설계 용역이 지난 3월20일 중지되면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2월 끝났어야 했다. 기본설계 용역이 중단된 데는 가장 기본적인 차량 선정 문제부터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본계획에는 차량 2량 편성(정원 153명)이 반영됐으나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대 등을 고려해 수송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검토중이다.

여기에 기본설계 95% 진행상황에서 사업비가 이미 정부 건설 예상 승인액의 15%를 초과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지난 2011년 도시철도2호선 정부승인 예산은 1조7394억 원이었다. 물가변동률을 적용할 경우 2015년 기준 사업비를 2조원으로 계산하면 이미 15.4%의 사업비가 증액됐다. 초과금액은 3000억원 이상에 이른다. 문제는 이 초과금액에는 최대 500억원이 들어가는 푸른길 보존 방안이나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급행선 건설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 기본설계과정에서 승인 받은 총공사비의 10%가 넘으면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광주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어온 푸른길 보존 문제와 기존의 저심도 공법에서 지상고가 모노레일 검토 등 아직까지 건설공법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공사 착공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향후 전망**=광주시가 이대로 정부 건설 예상 승인액의 10%를 넘어 1년 안팎 소요되는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경우 윤장현 광주시장 임기까지인 2018년 6월까지는 착공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착공시기가 1년여 늦어지더라도 윤 시장 임기내 착공이 가능하고, 착공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완공시점을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범수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당초 계획인 2016년말 착공은 불가능하다"면서 "빨라도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에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2조2000억원내에서 총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가치공학(VE)설계를 적용하고 설계심사도 병행해 사업비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설계VE는 설계단계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설계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 비용은 줄이면서 건설의 품질은 높이는 공사 기법이다. 또 고가의 저심도 중심에서 일부 구간을 저가의 노면이나 지상고가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 연말까지 예산 절감액을 확정하고 내년 초 차량선정과 함께 3월내 기본설계를 마무리 한 뒤 1년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실시설계에 들어가 이르면 2017년말이나 2018년 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착공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난공사 구간을 선착공 하는 등 설계와 시공을 병행해 애초 계획한 완공시기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의 이같은 구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검토와 중단 등을 거듭한 도시철도2호선의 윤 시장 임기내 착공은 미지수다. 김민종 의원은 "윤 시장이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부정적 생각으로 임기내 착공을 하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차일피일 소모적인 논란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서구, 남구, 광산구 등을 순환하는 총 연장 41.9㎞로 2016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착공 연기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최권일기자 cki@

2조 7천억 '모나리자' 팔면 프랑스 채무 줄인다?

김은영의 '그림 생각'

(125) 그림 값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에는 그 작품이 매매되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누가 샀던 적도, 팔았던 적도 없어 돈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가장 비쌀 것 같은 그림으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 한 프랑스 언론이 '모나리자'를 팔면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자, 영국의 한 언론이 모나리자의 잠재적 가치를 15억 파운드로 추정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7천억원이다.

다른 계산법들도 있다. 루브르미술관 관람객 설문조사를 통해 "모나리자를 관람하러 왔다"는 관람객 수와 입장료 등을 곱하면 4조의 가치라는 설, 작품의 희소성과 영원한 수익성 창출까지 보태면 40조원이 넘을 거라는 호사가들의 셈법 등이 그것이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의 '모나리자'(1503~1506년 작)가 몸값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걸작인 이유는 예술적 우수성, 미학적 독자성, 미술사적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속 인물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도 관람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모나리자의 불가사의한 표정, 슬픈 듯 웃는 듯 모호한 미소, 영혼의 움직임마저 느껴지는 신비함은 레오나르도가 창안한 그 유명한 스푸마토(sfumato)기법 덕분이다. 그 기법은 대상과 대상 사이를 구분 짓는 윤곽선을 흐리게 만들어 대상들이 서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었다.

'모나리자'

불후의 명작 앞에서 작품의 가치를 따지고 그림 값을 논하는 것은 왠지 고상하지 않아 보이지만, 그림 값이야말로 예술작품의 가치를 실감하게 만드는 구체적 지표인 셈이다. 자유롭게 그림을 사고 파는 미술시장인 '2015광주국제아트페어'가 2일 개막돼, 오는 6일까지 열린다.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작품을 골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